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건강보험사의 코로나19 백신 비용 공동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금융서비스부에 지시**

*보험사에 송부한 DFS의 회람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건강보험사의 코로나19 백신 비용 공동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비상 규정](#)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 및 지침 적용이 연장됨으로써 뉴욕주가 모든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의 백신 접종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코로나를 극복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노력을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의 우선 순위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한 지역사회였으며, 이번 규정 확대로 인해 백신 접종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비용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6일에 처음 발령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급 불가 건강 보험을 포함한 병원, 수술, 진료 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계약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시설, 약국 또는 뉴욕주 혹은 연방 정부가 백신 접종을 관리 혹은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람 또는 장소에서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공동 부담 없이 즉각적인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는 또한 이미 뉴욕주 규제를 받는 건강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람](#)을 발행하여 고객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비용을 즉시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의 **Linda A. Lac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FS는 주 전역의 뉴욕 주민 및 기업에게 재정적인 구호를 처음으로 제공한 때로부터 이번 바이러스 대응의 전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재건을 계속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DFS가 뉴욕 건강 보험사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비용의 공동 부담을 포기하도록 지시한 규정을 확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공동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방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시행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할 경우에도 의무적인 보장 대상이 됩니다.  
[질병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COVID-19 Vaccination Program\)](#)에 참여한 건강 보험사는 반드시 개인의 비용 지불 능력 또는 건강 보험 보장 상태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접종 시행에 동의해야 하며, 접종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DFS는 승인을 받은 모든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시행에 대하여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의무 사항이 모두 준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